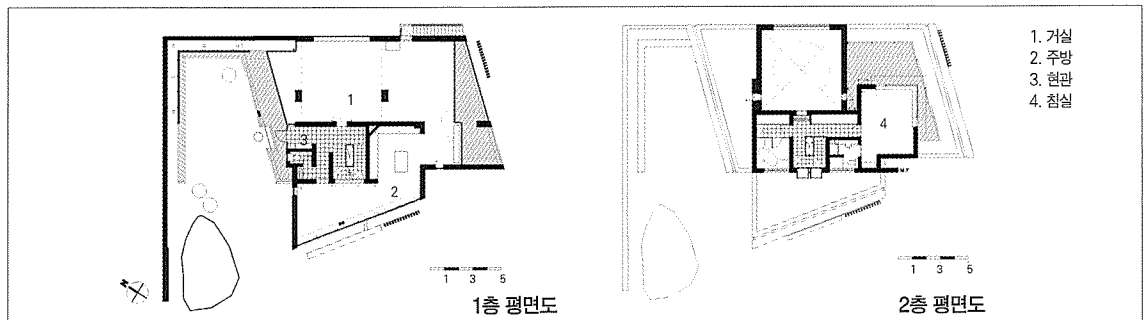


침성제

Cheom Seong Jae

민규암 / 토마건축사사무소
by Min Kyu-Am



막 공사마무리를 지은 이 집에서 며칠 전 몇몇 친구들을 불러모아서 조촐한 오프닝 하우스 행사를 가질 수 있었다.

늦은 오후 속속 도착한 그들은 친구가 설계한 이 집의 이곳저곳을 둘러보기 시작했고, 궁금한 부분들에 대한 질문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한 친구는 이 집 모양이 왜 여객선 같은 느낌이 나는지 모르겠다며 가우뚱거렸고, 다른 친구는 그것은 아마도 측면의 둥그런 네개의 창이 소실 해서 이만리에 나오는 잠수함의 그것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고, 건물 측면의 외부 구조물이 마치 노를 곧바로 세운 바이킹의 전선과 같은 모양을 띠기 때문이라고 스스로들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

설계자의 머리 속을 온통 복잡하게 휘저으며 난감한 질문들을 쏟아 붙던 그들이 갑자기 쥐죽은듯 조용해진 것은 그들을 데리고 이 집의 중심공간인 거실로 안내했을 때였다.

먼저 그들은 이 집의 거실공간의 수직적인 높이에 압도된 듯 보였다. 사실 이 집은 일반 주택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9m높이의 공간적 깊이를 갖는 거실을 갖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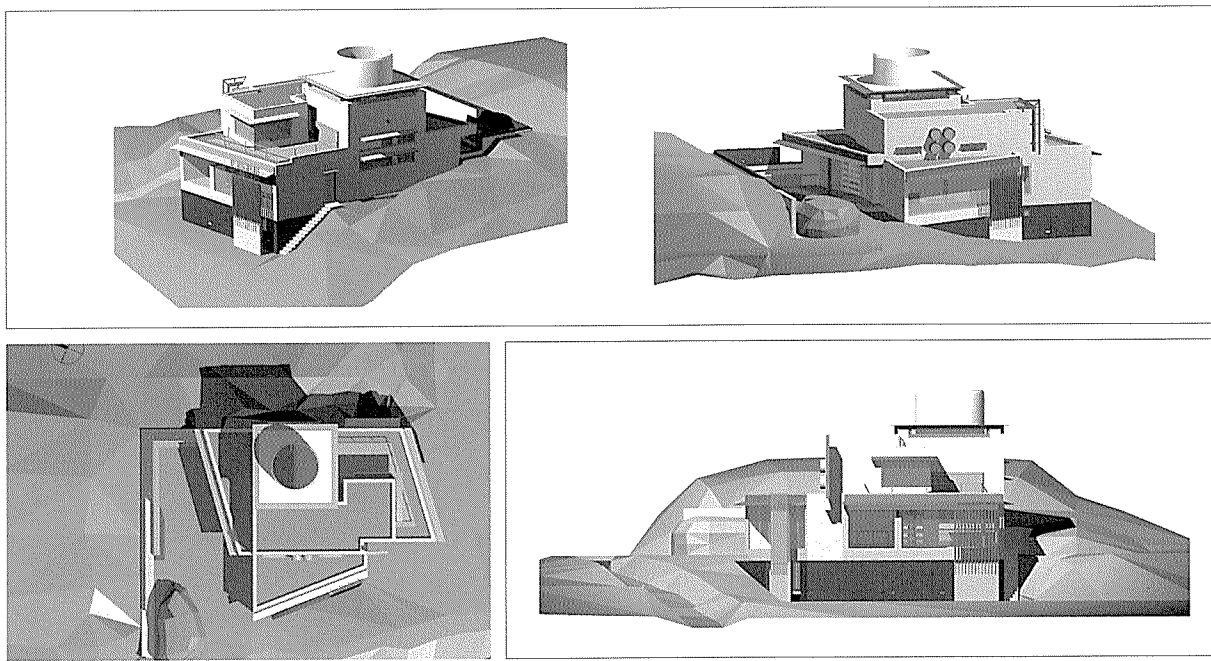
있다. 그것은 거실 바닥에서 그 상부의 천장을 통해서 보았을 때 그 위에 또 다시 존재하는 둥근 구멍을 갖는 구조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로써 그 구멍이 다시 하늘을 향해 그저 열려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 주택 거실의 천장 높이는 9m를 넘어선 무한대의 높이 바로 그것일 것이다.

그러나 무한대의 깊이를 갖는 거실에 대해 놀라던 친구들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계속되어 오던 질문공세를 재개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다.

“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 하늘에 구름이 다 보이네! 밤에는 별도 보이냐?” 그들의 호기심 어린 질문들이 계속 이어졌고, 내가 왜 이런 하늘이 보이는 집을 설계했는지 모두들 궁금해 하지않았다.

그날 그들의 지속적인 질문공세에 지쳐있던 나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불현듯 났었노라고 적당히 얼버무리고 말았다.

처음으로 이 집을 의뢰 받고 건축주 내외분과 함께 이 집이 들어설 자리를 방문했을 때 두 가지 놀라운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먼저 그것은 대지 주변의 자연이 너무도 훌륭하다는 것이었다. 대지 바로 옆에는 아름다운 시



넷물이 흐르고 있었고, 그 주위에는 멋진 거대한 검은 바위들과 죽어 수백년은 됨직한 소나무가 있었다.

반면 놀랍고도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필자가 사용할 수 있는 땅의 규모가 단지 100여평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었다. 대지를 보고 오자마자 계획에 들어간 필자는 주변의 여러 자연 요소들을 온통 건물과 연관시키기 시작했다.

거실에서는 바로 앞의 소나무를 보게 만들었고, 그 옆의 식당과 부엌에서는 시냇물 소리를 들으면서 검은 바위들을 감상할 수 있게 배려하였다.

그러나 설계가 점점 무르익어 갈수록 무엇인가 허전하다는 느낌이 더욱 더 가중되고만 있었다. 그것은 주변환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왜소한 대지 규모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되고 있었고, 머리 속은 항상 무엇인가 좀 더 이 집의 한계성을 극복해줄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없을까 하는 생각들로 가득차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이 집에 대한 이런저런 궁리로 잠자리에 누워서도 쉽게 잠을 청하지 못하고 뒤척이던 필자에게 아주 오래 전 어린 시절의 작은 꿈 하나가 불현듯 떠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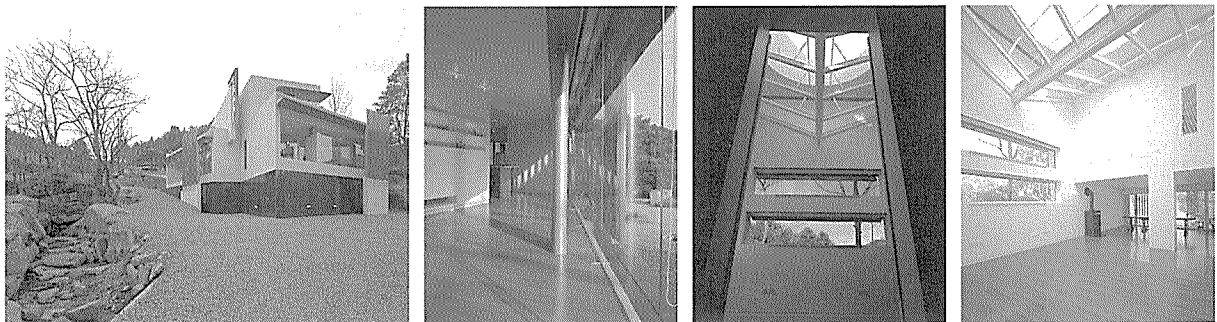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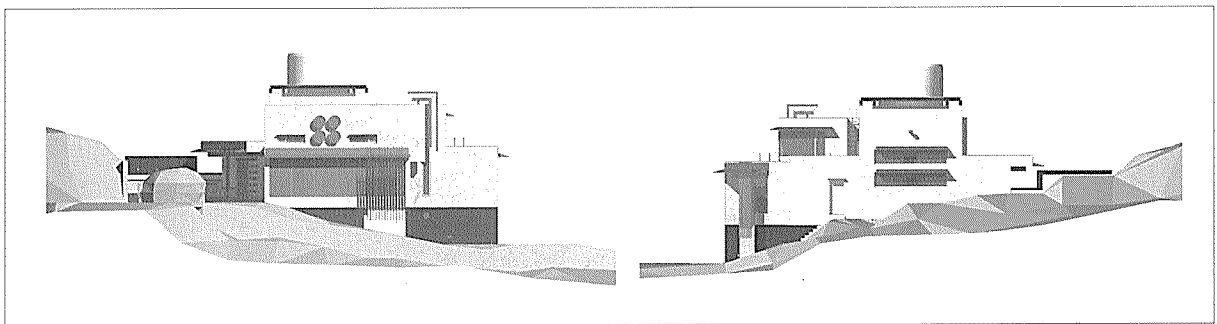
‘자기 전에 누워서 내가 잠들기 전까지 그 저 별들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최초로 보는 것이 맑고 푸른 하늘이라면 또 얼마나 기쁠까?’

어린 시절의 소망을 막상 이 집에서 실현시켜 보기로 마음먹었을 때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먼저 거실상부의 모든 부분을 유리로 된 투명한 천창으로 전부 개방한다면 여름 내내 과도한 일사량으로 이 집은 찜통이 되고 말 지경이었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 3m높이의 깊은 원통형 구조물을 상부에 설치했고, 이로써 과도한 일사가 실내에 침입하지 못하게 했다.

친구들에 의해서 물탱크로 오인된 이 원통형 구조물을 통해서 실내에 적절한 일사량이 제한적으로만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가능했고,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태양의 고도에 따라서 실내에는 하루종일 태양광선이 만드는 한편의 드라마가 상영되기 시작했다.

한편 원통형 구조물의 하부에는 실질적으로 외부의 비바람에서 이 집을 보호해줄 유리면으로 된 v자



형의 천창이 설치되어졌는데, 이 형태의 구조물은 빗물을 자연스럽게 모아서 한편으로 배출시키는데 용이하도록 고안되어진 것이었고, 또한 그 가운데 놓인 대형 철골보를 이용해서 쉽게 먼지에 오염되는 천창의 유리면을 직접 청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하부의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서 3중의 라미네이티드 복층유리를 사용해서 파손시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이로써 보통의 천창이 갖는 과도한 일사량조절, 적절한 우수의 배출 및 오염에 대한 유지보수성 그리고 안전성의 문제 등을 모두 해결해 낼 수 있었다.

친구들이 너무 늦지 않겠다며 일찍 서울로 차를 몰고 떠나버린 그날 늦은 밤 나는 처음으로 집안의 모든 전등스위치를 내리고 나서 그 넓고 넓은 거실마루바닥에 홀로 누워볼 수 있었다.

사방은 모두 칠흑같이 캄캄했다. 그리고 둥근 망원경 같은 상부의 원통구조물과 V자형 천창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잿빛의 구름들이 어렴풋이 흘러가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서 몇 개의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했다. ㄷ

대지위치	경기도 가평군 하면 하판리
주요용도	전원주택
대지면적	405.34㎡
건축면적	141.51㎡
연면적	196.00㎡
건폐율	35.78%
용적률	48.35%
규모	지하 1층, 지상 2층
구조방식	철근콘크리트 구조
외부마감	드라이버트 뿔칠+마천석 물갈기
내부마감	바닥 - 온돌마루판, 대리석 벽, 천장 - 석고보드위 백색락카
주요설비방식	전기온돌 시스템
설계담당	윤정현, 안경섭
감리담당	토마건축사무소
시공자	화인의장건설
건축주	김우희
설계기간	1998. 11 ~ 1999. 9
공사기간	1999. 10 ~ 2000. 4
구조	조정민

